(7) 송익필의 인간관계-『삼현수간(三賢手簡)』

강민우: 이이·성혼·송익필의 우정은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하다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알려졌는데, 일본의 임의방(林義方) 같은 학자는 이들을 중국 남송 대의 유학자인 주희·장식·여조겸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국내 후학들 사이에는 이런 비유가 없었지만, 그럴듯한 비유인 듯합니다. 특히 송익필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1599년 봄, 그의 아들 취대가 엮은 『삼현수간』에 의지한 바가 크다 하겠어요.

송익필: 『삼현수간』은 이이·성혼·저 세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 모음집으로, 모두 98통의 편지글이 실려 있습니다. 삼현의 문집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 16통이고, 일부만 실려 있는 것이 15통입니다. 개인별로 주고받은 것을 보면, 성혼이 저에게 49통, 제가 성혼에게 20통, 이이가 저에게 13통, 제가 이이에게 7통을 보낸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이와 성혼이 주고받은 편지는 제가 소지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강민우: 『삼현수간』의 내용을 보면, 이이와 성혼 두 사람 모두 송익필 선생에게 의지한 바가 컸음을 알 수 있다지요. 이것은 선생의 위상과 관련이 있겠군요. 『구봉집』 권4-5의 「현승편」에 본 편지의 일부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원제목이 <현승편>임을 알 수 있으며, 『삼현수간』이라는 명칭은 후대에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송익필: 「현승편」에 나오는 총 98편의 편지 가운데 세 사람의 문집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 16편, 일부만 실려 있는 것이 15편입니다. 편지를 주고받은 시기는 1560년부터 시작하여 죽기 전인 1593년까지 계속됩니다. 세 사람은 20대 중반부터 서신을 왕래하는데, 개인적인 일, 학문과 관련된 사항, 이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 안타까워한 일 등 35년이란 세월을 두고 교유한 내용입니다.

강민우: 오늘날 『삼현수간』은 2001년에 임재완이 '세 분 선생님의 편지글'(호암미술관 학술총서)이란 이름으로 역주한 것이 있습니다. 『삼현수간』은 송익필 선생이 죽기 직전 1599년에 아들 취대가 보관하던 서간문을 수습하고, 선생님이 서문을 붙여 4권의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후 이것을 김장생에게 주어 지금까지 광산 김씨 종가에서 보관해 오다가 1989년 처음 공개되고, 2001년 임재완이 <세 분 선생님의 편지글>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한 것입니다.

송익필: 저는 이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나는 성혼·이이와 가장 친하게 지냈다. 지금 둘 다 세상을 떠나고 나만 살아있다. 몇 날 더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들 취대가 지난 임진왜란으로 두 친구의 글이 흩어지고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나머지 편지와 내가 답장한 글, 그리고 잡다한 기록을 모아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모두 모아서 책으로 만들고 죽기 전에 보고 느끼는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만력 기해년(1599) 봄 송익필 씀"

강민우: 『삼현수간』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송익필 선생이 성혼에게 보낸 것이 20회, 송익필 선생이 이이에게 보낸 것이 7회, 송익필 선생이 성혼과 이이에게 보낸 것이 1회, 성혼이 송익필 선생에게 보낸 것이 48회, 성혼이 송익필 선생과 그의 동생인 송한필에게 함께 보낸

것이 1회, 이이가 송익필 선생에게 보낸 것이 14회, 기타가 7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혼이 송익필 선생에게 보낸 편지가 48회이고, 송익필 선생이 성혼에게 보낸 편지가 20회로, 송익필 선생과 성혼 사이의 왕복 서신이 많은 편입니다. 이에 비해 이이와의 편지가 적은데, 이는 아마도 이이가 바쁜 관직 생활과 함께 송익필·성혼보다 10여 년 이상이나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송익필·성혼·이이가 주고받은 편지글 이외에도 송익필 선생이 김장생에게 보낸 편지 2편, 허우(許雨)에게 보낸 편지 2편, 조헌에게 보낸 편지 1편, 이산보(李山甫)에게 보낸 편지 1편, 정철에게 보낸 편지 1편이 실려 있습니다.

송익필: 우리 세 사람의 왕복 편지 가운데 실제로 저와 성혼이 주고받은 편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 편지글 가운데 성혼이 저에게 보낸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이 좋지 않았던 성혼이 건강에 대한 안부를 묻는 글과 출처(出處)의 의리를 묻는 글이 많습니다. 저는 성혼에게 "병든 몸을 이끌고 대궐로 나아가서 이러한 기회에 정의를 펼치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출처의 의리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삼현의 돈독한 우정이 있었기에 김장생·김집·조헌 등 수많은 유학자가 이들의 문하를 드나들며 학문을 성취하였겠군요. 이는 후일 기호 유학을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한국 유학사상사에서도 큰 업적을 남겨서 삼현의 우정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송익필: 편지 내용은 주로 성리와 예학에 관한 글, 수양방법에 대한 의견과 경세에 관한 시책 등 서로를 권면하는 글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강민우: 또한 학문적인 교유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모습에서 한 시대를 대변한 유학자들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학문과 경륜에서 선생님이 이이와 성혼보다 한 수 위였던 것 같고, 이는 이이와 성혼이 인정했다지요. 이이와 성혼이 서로 의견이 대립할 때 선생님에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청하기도 했고요.

송익필: 30년 이상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결같이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경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삼현은 세상에 그 짝이 드물 정도로 친한 벗이지만, 때론 준엄한 비판자가 되기도 합니다.

강민우: 삼현에 대한 후학들의 평가는 어떠했나요.

송익필: 장유(張維)는 "「현승편」을 통해 노선생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얻어 볼 수 있었다. 얼마나 성실하게 문의하고 얼마나 우의가 돈독했는지 상상할 수 있다. 지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이이의 말씀은 솔직하고 평이하며, 성혼의 말씀은 공경스럽고 간절하며, 송익필의 말씀은 논리적이고 학식이 깊었다."(『계곡집』 권3)

강민우: 삼현의 관계를 보면 참으로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면들이 많은 듯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편지글을 보는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송익필: 성혼과 이이는 천민이 되어 전국을 떠돌며 어려운 생활을 하던 저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기·생선·약초·식량 등을 보내 생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보내준 송화 떡을 먹고 고마워하는 성혼, 저를 위해 간에 좋다는 토사자와 폐에 좋다는 육종용과 오미자 등을 구해주고 때로 말린 물고기·옷감·곡식을 보내 알뜰살뜰 보살폈던 성혼, 저에게 편육 약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챙기라고 당부한 성혼의 우정은 정겹다 못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강민우: 선생님도 말린 노루고기를 성혼에게 답례로 보내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지요.

송익필: 청어 몇 마리를 저에게 보내면서 "물이 스며 문드러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채소보다는 나을 듯합니다"라고 했던 성혼. 그는 또 숯이 없어 고생하는 저를 생각하여 숯 한 가마니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의 아우 송한필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걱정했던 성혼의 넘치는 인정에 고개가 절로 숙어집니다.

강민우: 선생님이 성혼에게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군요. "여러 차례 어육을 보내주셨습니다. 간절한 정성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는 마음 잘 받겠습니다." "종이를 가득 채운 다정한 말은 나태한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합니다. 진귀한 해산물 30개는 질병으로 삐쩍 마른 저의 마음과 몸을 염려하신 것이겠지요."

송익필: 이이 역시 저에게 보낸 서한에서 "봉급으로 받은 쌀과 콩 두 말씩을 보냅니다. 포대는 인편에 보내주심이 어떨지요"라고 했습니다. 성혼 못지않은 세심한 배려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이이는 저에게 작은 문어 두 마리를 보내면서 약소하다는 생각에 "등에 땀이 날 정도로 부끄럽다"라고 했습니다.

강민우: 이러한 우정에도 학문에는 저마다 특징이 달랐다지요.

송익필: 『삼현수간』을 통해 삼현이 학술적으로 토론한 내용을 보면, 이이는 솔질하고 거침이 없으며 대통을 쪼갠 듯 시원합니다. 성혼은 겸손하고 신중하면서도 상대방의 논리적 모순과 허점을 매섭게 지적합니다. 저는 솔직하고 거침없으면서도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후학들로부터 "송익필은 재주와 학식이 넉넉하나 덕이 부족하여 성혼·이이 두 사람과 말할 때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뜻이 많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강민우: 성혼이 선생님께 "이이의 날카로운 칼날이 송익필에게 완전히 굴복되는 것을 알고는 지극히 위로되었다"라고 한 것은 선생님의 학문적 성취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신중하고 겸손한 성혼은 매사에 선생님께 물었다지요. 태묘(太廟)에 들어가 매사를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라고 하였던 공자를 연상케 합니다. 성혼은 선생님께 "정론을 내달라", "의혹을 풀어달라"고 했다지요. 친구 사이에 '의혹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은 성혼의 품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송익필: 이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저와 성혼은 한층 더 각별한 우의를 다집니다. 학문상의 교유보다는 몸의 병, 마음의 병, 번잡한 고민 등 신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저는

오랜 시련으로 성혼보다는 마음이 다소 단련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성혼에게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것이 몸의 병을 다스리는 길이니 “양심(養心)과 양병(養病)이 같은 방법이다”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저는 수양하면서 얻은 결과와 느낀 점에 대해서도 말해주니 “적막을 지키고 담박함에 안주하여 고요함 속에서 의미를 터득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성혼에게 “죽음이란 바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주어진 때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의 섭리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당부했다지요.

송익필: 1584년 이이가 세상을 떠난 뒤, 성혼은 서인의 구심점이 되어 이이와 성혼의 문인들을 이끌게 됩니다. 성혼은 이이의 문집을 편찬하는 데도 앞장섭니다. 성혼이 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이 문집은 제가 발의한 지 벌써 6년이 되었으나,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거나 “이이 문집은 진척이 없습니다. 아직 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듯이, 이이가 세상을 떠난 뒤 곧바로 문집의 편집이 시작되었으며 저와 긴밀히 상의하여 추진했습니다.

강민우: 삼현의 우정은 이후 대를 이어 꽃을 피웠다지요. 성혼을 사숙했던 박세채에 의해 『율곡집』과 『우계집』이 엮어지고, 김장생의 후손들에 의해 『구봉집』을 비롯하여 선생님의 저술들이 엮어진 것이죠.